

원희룡 장관, “항공기 안전·보안 관리에 만전 기할 것”

- 한국항공대 학생과 비상선언 관람, 젊은 항공인의 꿈을 위해 더욱 노력 -
- 탑승객이 많아지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보안 허점이 없도록 관리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3일 개봉하는 우리나라 최초 항공 재난영화인 ‘비상선언’을 항공기 조종사 등을 준비 중인 한국항공대 학생과 함께 관람했다.
- 원 장관은 관람에 앞서 항공기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 ‘비상선언’에 대해 이야기하며 “항공기 테러는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정부, 공항공사, 항공사 등 항공종사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”고 밝혔다.
- 또한 “영화에서는 테러범이 비행기에 탑승하지만, 현실에서는 탑승 전에 검거되어야 할 것”이라며, “사고가 없는 평소에도 폭발물 테러 및 사이버 공격과 같은 신종 위협에 대한 철저한 사고대응 체계 및 역량을 갖추고 사전 점검과 훈련을 실제 상황처럼 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- 실제로도 원 장관은 그간 공항을 점검하며 지난 6월 국제선 정상화와 항공 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 성수기를 계기로 안전과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, 공항·항공사 모두에게 긴장감을 높여달라고 지속 주문한 바 있으며,
- “국토교통부도 오랜 기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항공기 안전 및 공항 보안에 느슨해졌던 부분과 위협 요인은 없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현장을 살펴보며 점검 및 개선하겠다”고 이날 거듭 밝혔다.
-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“작은 오류가 아차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승객들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”고 당부하였다.

- 이어, 원 장관은 취업난 등 학생들의 여러가지 개인적인 고민을 듣고 “코로나 팬데믹으로 항공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젊은 항공인의 고민이 많았을 것”이라고 청년의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며,
 - “항공 수요 회복으로 상황이 차츰 개선되겠지만, 국토교통부도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”고 밝히며 “청년들도 항공에 대한 꿈을 잃지 않도록” 당부하고,
 - 특히, “UAM, 드론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새로운 기회가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”며 격려하였다.

2022. 8. 4.

국토교통부 대변인